

미래에 있어서 일본잠사학의 발전방향과 전망

Masahiko Kobayashi

University of Tokyo, Japan

서두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 한국잠사학회에 관련된 훌륭하신 여러 관계자 앞에서 강연을 하게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본 잠사학에 관한 일본정부와 민간 연구조직, 학회 등의 미래적인 방향에 관한 이야기 및 한국의 관련자 여러분들과 미래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변혁의 시대

몇몇 시대에도, 몇몇 나라에도, 변혁의 물결은 찾아와서 반드시 떠나갔다. 세계적인 개혁의 흐름에 동조해서 일본의 국립대학은 법인화 문제를 고려해 왔다. 또한 잠사곤충농업기술연구소를 필두로 국립연구기관은 금년 4월부터 독립행정 법인화 되어 「잠사」라는 명칭이 사라진 새로운 조직 속에서 시행착오를 계속해오고 있다. 그 위에 일본잠사학회와 같은 오래된 학회는 모두 새로운 학회에 의해서 학회 회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재편성,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중에서 잠사학이나 잠사학회의 나아갈 방향은 지금까지와 같이 「부흥」 「부활」 「진흥」이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의식개혁

「농학은 번영하고 농업은 쇠퇴」라고 100년 전에 横井時敬이라는 농학자가 말하였다. 이것은 「학술은 번영하고 산업은 쇠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横井時敬은 구장(駒場)농학교 제 1기생이지만, 「벼의 것은 벼에게 묻게」라고 말하면서 농업현장을 연구의 장소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농학은 번영하고 농업은 쇠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우수한 두뇌를 중요한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무목적의 이학연구로 달리는 「학」을 경고한 단어이다. 현재, 잠사학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학문의 당면과제로는 「학」의 목적이고,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식」이다.

구조개혁

이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지상의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시작한 것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법인화이다. 요컨대 학자 개인의 의식보다 그 소속 기관을 목적이 확실한 것으로 하여서 서로를 경쟁시키는 것이다. 잠업연구에 있어서 이것 자체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잠업연구는 목적이 최초로 있고 여기에서 기초로 분야를 넓혀갔기 때문이다.

학문체계

전통 있는 잠사학은 훌륭한 학문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학문체계는 더없이 광의적이고 포괄적이다. 이것은 중심에 잠사업이라는 것이 있으며 제각기 桑(뽕나무), 蠶(누에), 絲(실)에 있어서 기초에서 응용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중심에 있는 잠사업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橫井時敬한탄한 것은 잠사학과 잠사업에는 꼭 들어맞지 않는다. 잠사업이 더없이 융성한 시기의 일본 외화의 70% 이상을 생사 수출로 획득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수한 연구자가 잠사학에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잠사업이 구심점이 되어 잠사학의 흔들림 없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면 지금, 구심력을 잃어버린 잠사학은 이대로 붕괴해버리는가?

평가측

학자의 의식 중에는 역사지향과 미래지향이 있습니다. 역사지향은 성공한 예를 기본으로 실천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래지향은 오히려 실패한 예를 기본으로 새로운 전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자의 의식지향이지만, 이것에 대응해서 평가도 다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명확한 것은 상업의 가치판단으로 경제적 공헌을 척도로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학문연구를 자기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를 척도로 보면 마찬가지로 더없이 명쾌하다.

이에 대해서, 당 학자는 Impact Factor나 Citation Index라고 하는 지표를 평가측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과 산업의 가치판단 그리고 일반인들의 가치판단간에는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있다. 「농학은 번영하고 농업은 쇠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 농학자 뇌리에 재차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해서 기존의 산업을 잃어버린 잠사학연구자와 학자는 자기의 평가측을 자기자신이 정할 필요가 있고, 그 평가측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잠사연구자의 장래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평가척도는 연구의 출구 효용을 가지고 측정할 것인가 또는 학문에 대한 영향력에 의해서 측정할 것인가이다. 전자는 경제성, 후자는 비교우위성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경제가치를 노리고 연구를 할 것인가 또는 다른 학문보다 우수한 연구를 할 것인가이다. 이것은 다양한 평가축 전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특화한 평가축을 가지는 것이다.

잠사학의 장래

잠사학이라는 학문을 생각할 때, 잠사업의 강력한 구심력에 의해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다양한 성과를 다양한 분야로 발산하고 그 성과가 다양한 평가축으로 평가되어왔다는 사실을 느낀다. 하나의 평가축만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축에 대한 보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학문의 건전한 발전방향이다. 잠사업이라는 강력한 구심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다양한 평가축을 결집하는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지금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새로운 구심력을 찾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분산해 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물어서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낙관하고 있다. 잠사학에는 한술밥을 먹은 동료들이 있다. 흙을 경작하여 뽕나무를 키우고, 누에를 키우며, 고치를 모아서 실을 빼서 짜고, 비단을 만든 우리들의 중심에는 항상 누에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전부 누에를 중심으로 살아온 동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에 즉 잠사라고 하는 공통어를 가지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잠사업에는 몇 번의 파도가 찾아왔다. 그러나 지구 규모로 보면 몇몇 나라에서 성쇠를 볼 수가 있었고 전체 잠사업은 확실한 발자취를 가지고 있다. 결국 잠사업의 중심은 중국에서 시작하여 유럽에서 흥하고, 일본, 한국, 중국에서도 흥한 것과 같이 중심국은 변천하여도 지구규모로서의 잠사업은 그다지 큰 변동은 없다. 지금까지 위기는 화학섬유가 시장을 석권하였을 때, 전염병이 만연하였을 때 정도이다. 현재는 오히려 비단에 있어서 가장 크면서도 작은 전쟁 일지도 모른다. 평화시야말로 비단은 소비되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한국과 일본의 오래 전부터의 연구동료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 잠사학의 발전을 기약하는 것은 정말로 평화의 지속에 공헌하는 것이다. 힘을 합쳐 열심히 합시다.

未来における日本蠶絲學の發展方向と展望

小林正彦

日本蠶絲學會

〔御挨拶〕

初めて訪れた韓国で、長年の研究仲間の方達の前でお話する機会を與えて下さったことを、大變光榮に存じ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今日は、日本の蠶絲學に關わる國や民間の研究組織、學會等の將來的な在り方についてお話し致し、皆様と將來を語り合いたいと思います。

〔變革の時代〕

何時の時代にも、何處の國でも、變革の波は訪れ、必ず去って行きます。今、世界的な改革の流れに同調して、日本の國立大學は法人化の問題で苦慮しています。また、蠶絲昆蟲農業技術研究所をはじめ國立の研究機關は今年の4月から獨立行政法人化され、「蠶絲」の名前が消えた新しい仕組みの中で試行錯誤を續けています。さらに、日本蠶絲學會のように古くからある學會は、いずれも新興學會に押されて學會員の減少など再編整備を圖らねばならない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このような背景の中で、蠶絲學や蠶絲學會の進むべき方向はこれまでのように「復興」「復活」「振興」という言葉では語りきれなくなってきました。

〔意識改革〕

「農學榮えて農業減ぶ」と100年前に横井時敬という農學者が言いました。これは、「學術榮えて産業減ぶ」と言い換えることができるかと思ひます。横井時敬は駒場農學校の第1期生ですが、「稻のことは稻に聞け」と言いつつ農業の現場を研究の場として多くの業績を残しました。「農學榮えて農業減ぶ」ということは、その國の優れた頭腦を重要な分野に活用することが大切であり、無目的の理學研究に走りがちな「學」を誠めた言葉です。今、蠶絲學ばかりでなく世界の學問が問われているのは、「學」の目的であり、學問にたずさわる者の「意識」であります。

〔構造改革〕

學者の理學至上の意識というのは、そう易々と變わ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そこで、世界の國々が取り組み始めたのは、大學や研究機關の法人化です。つまり學者個人の意識より、その屬する機關を目的のはっきりしたものにしてしまい、互いに競争させようというものです。蠶絲研究にとって、このこと自體は恐れるに

足ることではなく、むしろ恐れてはいけないことであると思います。なぜなら、蠶絲研究は目的が最初にあり、そこから基礎に裾野を広げてきたからです。

〔學問體系〕

傳統ある蠶絲學は立派な學問體系をもっています。この學問體系は極めて幅広く包括的です。これは中心に蠶絲業というものがあり、それぞれ桑、蠶、絲について基礎から應用まで廣範圍にわたっているからです。中心にある蠶絲業があまりにも強力であったため横井時敬が嘆いたことは蠶絲學と蠶絲業には當てはまりませんでした。蠶絲業が隆盛を極めた頃、日本の外貨の70%以上を生絲の輸出で獲得していましたから、黙っていても優れた研究者が蠶絲學に集まってきたのです。つまり、蠶絲業が求心力となって蠶絲學の揺るぎない體系が構築されていたのです。

では今、求心力を失った蠶絲學は、このまま崩壊して行くのでしょうか。

〔評價軸〕

學者の意識の中には、歴史志向と未來志向があります。歴史志向は成功例をもとに實踐的な活用を圖ろうとするものです。未來志向はむしろ失敗例をもとに新たな展開を圖ろうとするものです。これらは學者の意識の志向ですが、これに對應して評價もまた多様でなくてはなりません。最も明確なのは産業の價值判斷で、經濟的貢獻を尺度とします。これは、人々が學問研究を自分達の生活にどれだけ役に立つものか、という尺度で見ると同様で極めて明快です。

これに對して、當の學者はImpact FactorやCitation Indexという指標を評價軸に考えています。これと、産業の價值判斷、一般の人々の價值判斷の間には天と地ほどの隔たりがあります。「農學榮えて農業減ぶ」という言葉が、私たち農學者の腦裡に再び響き渡るような氣がします。このような背景あって、既定の産業を失った蠶絲學研究者は、學術のあり方も含めて自分の評價軸を自分で定める必要があります、その評價軸を人々に理解し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す。

〔蠶絲研究者の將來〕

今の私達が選擇肢として持つ評價の尺度は、研究の出口の効用をもって測るか、學に對する影響力によって測るかです。前者は經濟性、後者は比較優位性です。ですから、これからは、新たな經濟價值を射とめる研究をするか、他の學問分野より優れた研究をするかです。これは多様な評價軸の全てに應えるというのではなく、研究者が個々人で特化した評價軸を持つということです。

〔蠶絲學の將來〕

蠶絲學という學問を考える時、蠶絲業の強い求心力により多様な人智が注ぎ込ま

れ、多様な成果を多様な分野に発信し、その成果が多様な評価軸で評価されてきたことに気づきます。一つの評価軸だけでなく多様な評価軸に對し應え得ることは、學問の健全な發展方向であります。蠶絲業という強力な求心力を失ったことは、この多様な評価軸を結集する中心を失ったということでもあります。今、何をもって新たな求心力とするか、さもなくば、離散すべきなのか、ということを変更して問い直す必要があります。しかし、これについても私は樂觀しています。蠶絲學には同じ釜の飯を食った仲間がいます。土を耕し桑を育て、蠶を養い、繭を集める、絲を引き、絲を紡ぎ、織物を織る、私たちの所作の中心には常に蠶がいたのです。私たちは、みんな蠶を中心に生きてきた仲間です。そして蠶を語る共通の言語（蠶絲語？）を持っています。

[結び]

これまでに蠶絲業には幾つもの波が訪れています。しかし地球規模で見ると、個々の國々に盛衰は見られるものの、全體の蠶絲業は確りとした足取りを保っております。つまり、\絲業の中心は中國に始まり、ヨーロッパで榮え、日本、韓國で榮え、中國で榮えというふうに、中心國は變遷しても地球規模での蠶絲業は、それ程大きな變動をしていません。これまで危機というと、化學纖維が市場を席卷した時、病氣が蔓延した時、くらいです。むしろ、絹にとっての一番の敵は戦争かも知れません。平和な時にこそ絹は消費され、人々の心と身體に潤いをもたらすものだからです。これから韓國と日本の古い研究仲間が力を合わせて、互いの蠶絲學の發展を期すことは、正に平和の持續に貢獻することでもあります。力を合わせて頑張りましょう。